

중러 대상 북한 외래 관광에 대한 평가와 전망

이상근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kuhnlee@naver.com

I. 머리말

북한은 김정일 집권 시기에도 남한, 중국 등으로부터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였다. 그러나 관광 인프라 건설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면서 관광산업 육성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김정은 집권 이후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은 외래 관광객 유치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는데,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중 대다수는 중국인이었다. 정확한 집계는 어려우나 201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이 유치한 외래 관광객 중 80% 이상이 중국인이었다는 것이 업계의 통설이다.¹⁾

관광산업을 육성하려는 북한의 노력은 2020년 1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국경 봉쇄와 함께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국경 재개방 이후 북한의 외래 관광객 유치는 러시아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2024년 한 해 동안 북한을 방문한 외래 관광객은 러시아인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경 재개방 이후 러시아인 이외의 외국인이 관광 목적으로 북한을 여행한 사례는 2025년 2월 하순 서방 관광객들의 나선경제특구 방문과 2025년 4월 평양국제마라톤 참가자들의 평양 관광이 전부인 듯하다. 이처럼 북한은 중국과 서방 등으로부터의 관광객 유치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취하면서도 러시아인 관광객은 매우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관광 인프라 건설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 온 북한은 관광 수입 확대를 위해 머지않아 중국인 대상 단체 관광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러시아 일변도였던 북한의 외래

1) 김정우, 「북한 관광 독일인 연간 350~400명...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4%」, 『VOA』, 2016. 12. 30; 황저우무역관, 「'국제 사회 진입' 달라진 북한의 관광 산업 현황」, KOTRA, 2028. 8. 31(https://dream.kotra.or.kr/dream/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2&MENU_ID=3340&CONTENTS_NO=1&bbsGbn=247&bbsSn=247&pNttSn=169237, 접속일: 2025. 6. 10).

관광객 유치 전략도 러시아와 중국을 양대 축으로 삼는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다. 북한이 대외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한미일과 서방 등으로부터 많은 관광객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북한이 심혈을 기울여 온 관광산업 육성정책의 성패는 결국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얼마나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들이 북한 여행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쓰게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중국과 러시아 관광객 유치를 통해 관광산업을 육성하려는 북한의 노력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를 전망하는 것이다. 중러 대상 북한관광의 성공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먼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북한 외래 관광의 중핵을 이루었던 중국인 대상 북한관광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떤 부침을 겪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국경 재개방 이후 북한 외래 관광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 러시아인 대상의 관광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도 검토할 것이다.

II. 중국인 대상 북한 외래 관광의 부침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북한관광은 1988년 변경관광의 형태로 본격화되었다. 변경관광이란 중국정부의 승인을 받은 여행사에 의해 조직된 관광객들이 중국과 상대 국가 정부가 합의한 지역과 기간에 한해서 단체로 관광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²⁾ 일반적으로는 접경지역을 단기간에 둘러보는 단체 관광을 변경관광이라고 부르고 먼 거리까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형태의 관광은 일반관광이라고 칭한다.³⁾ 중국인 대상 북한 변경관광은 초기부터 제한 인원을 크게 초과할 정도로 인기를 끌어 1990년까지 8,752명이 참가했다고 한다. 이런 인기로 인해 신의주 1일 관광으로 시작되었던 변경관광은 1992년 평양을 포함하는 루트가 추가될 정도로 시공간적 범위가 확대되었다. 방북하는 중국 관광객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7년에는 48,000명을 넘었다고 한다. 2000년대 초반에는 북한이 ‘아리랑’ 공연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외래 관광객 유치에 더욱 힘을 쏟은 결과 중국인 관광객이 더욱 늘어났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에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확산, 관광객들의 도박을 막으려는 중국의 관광 중단 조치, 북한 핵 실험에 따른 북중 관계 악화 등 악재가 속출하여 방북한 중국 관광객 수가 1990년대보다도 적어지게 되었다.⁴⁾

2) 김한규, 「중국인 북한관광의 흐름과 변화」, 『KDI 북한경제리뷰』, 2019년 7월호, p.32.

3) 김지연, 「북-중 관광협력 실태분석과 전망」, 『KIEP 지역경제 포커스』, 제7권 제41호, 2013. 7. 1, p.4.

4) 김한규, 「중국인 북한관광의 흐름과 변화」, 『KDI 북한경제리뷰』, 2019년 7월호, pp.31~35.

위축되어 가던 중국인 대상 북한관광은 북중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다시금 활성화되었다. 중국은 2009년 북한을 ‘단체출경관광목적지국가’로 지정하였다. 이전에는 북한이 초청하는 방식이나 대표단 방문 형식으로만 단체 관광이 가능하였으나 이 조치로 인해 여행사가 모객하는 형태의 북한 단체 관광이 가능해졌다. 2010년 4월 새로운 형태의 중국 관광단이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였고, 뒤이어 중국 여행사들은 베이징, 광저우, 저장성 등 중국 각지에서 모집한 관광객들을 열차에 태워 북한으로 보냈다. 이후 중국의 주요 도시들과 평양을 잇는 많은 항공편이 신설 및 증편되었다. 중국인 북한관광의 성격도 변경관광이 아니라 평양 중심의 일반관광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⁵⁾

2016년에는 두 차례의 북한 핵 실험에 대한 한국의 반발과 북중 관계 악화의 영향으로 북한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의 수가 다시 줄어들었다. 그러나 2018년 봄부터 남북 관계와 북중 관계가 개선된 결과 북한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의 수가 다시 늘어났다. 2019년의 경우 방북한 중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고치인 24만~27만명에 달했던 것으로 추산된다.⁶⁾ 상황을 이루던 중국인 대상 북한 외래 관광은 2020년 1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중단되었다. 북한은 2023년 8월 하순부터 국경 봉쇄를 풀기 시작했으나 중국인 대상 북한 단체 관광은 2025년 6월 현재까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중국 여행업계 종사자들이 나선을 방문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것으로 보아 중국인들의 북한 단체 관광이 머지않아 재개될 수도 있을 듯하다.⁷⁾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북한 외래 관광은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관광객의 수가 급증하거나 급감하는 등 많은 부침을 겪었다. 북한과 중국은 다양한 이유로 중국인의 북한관광을 중단시키곤 하였다. 1988년부터 2003년 사이에는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관광 조건을 다시 정하려는 북한의 요구 때문에 중국인 대상 북한관광이 여러 차례 중단되었다. 종합서비스료 인상, 관광 대가 지불방식 변경 등 북한 측의 요구는 다양하였다. 북한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2003), 에볼라 바이러스(2014)와 같은 전염병 확산이나 대규모 수해(2006)와 같은 재난·재해를 이유로 중국 관광객의 방북을 중단시키기도 하였다.⁸⁾

더욱 주목되는 것은 북중 관계 악화에 따른 관광 중단 사례들이다. 1992년 8월 한중 수교가 발표되자 북한은 같은 해 9월부터 11월까지 중국인 대상 관광을 중단하였다. 중국도

5) 김한규, 「중국인의 북한관광 변화 연구: 1980년대부터 2017년까지의 전개과정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제14권 제1호, 2018, pp.57~61.

6) 임을출 외, 『북한관광의 이해』, 서울: 대왕사, 2017, p.270; 최장호 외, 『북한의 대외관계 평가와 2020년 전망: 북중·북러관계를 중심으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20권 제7호, 2020. 2. 20, pp.5~6; 김한규, 「중국인 북한관광의 흐름과 변화」, 『KDI 북한경제리뷰』, 2019년 7월호, pp.35~39.

7) Dave Yin, "North Korea could reopen Rason to foreign tours in 'near future': Travel agency," NK News, June 16, 2025.

8) 김한규, 「중국인의 북한관광 변화 연구: 1980년대부터 2017년까지의 전개과정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제14권 제1호, 2018, pp.64~67.

여러 차례 자국민의 북한관광을 중단시킴으로써 북한에 대하여 불만을 표출함과 동시에 압박을 가하였다. 중국이 북한관광을 중단시킨 주된 이유는 북한의 핵 실험 실시였다. 2006년 10월 북한이 첫 번째 핵 실험을 단행하자 중국은 그해 12월까지 모든 형태의 북한관광을 금지했다. 2006년 7월 북한이 심한 홍수 피해를 보아 중국인의 북한관광이 대부분 중단되었으나 상업 시찰 형식의 평양 관광은 유지되고 있었는데 북한이 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핵 실험을 하자 이마저 중단시킨 것이다.⁹⁾ 2013년 2월 북한이 3차 핵 실험을 실시한 뒤에도 중국인의 북한관광이 중단되었다. 단둥과 옌벤 등지에 거점을 둔 중국 여행사들은 관광객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4월부터 약 2개월 동안 북한관광상품 판매를 중단하였다. 중국정부는 관광 중단이 여행사들의 자발적 결정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중국이 동참하는 흐름 속에서 중국정부가 일률적으로 취한 조치였다.¹⁰⁾ 2017년 4월에는 북한의 6차 핵 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중국이 경고 차원에서 북한으로의 단체 관광을 두 달가량 중단시켰다.¹¹⁾ 중국정부는 정작 2017년 9월 6차 핵 실험이 감행된 뒤에는 북한관광을 금지하지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둔 11월 초에 북한관광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또 같은 해 11월 말에도 지린성과 랴오닝성 이외 지역의 북한관광 프로그램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하달했다.¹²⁾

중국정부가 북한관광을 중단시키지 않았으나 북중 관계 악화나 중국인들의 북한에 대한 불만 고조가 북한 외래 관광의 위축으로 이어진 경우도 적지 않다. 북한이 2차 핵 실험을 감행했던 2009년의 경우 대북 유화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중국정부는 북한을 형식적으로 비판했을 뿐 관광 중단과 같은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북한의 핵 실험으로 인해 중국 내 반북 정서가 강해진 결과 3년 만에 재개된 변경관광이 큰 호응을 얻지 못하는 등 북한관광에 나서는 중국인의 수가 단기적으로 감소하였다.¹³⁾ 4차, 5차 북한 핵 실험이 있었던 2016년의 경우에도 중국정부는 자국민의 북한관광을 금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북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중국 여행사들의 한국 비자 발급 대행 업무를 금지하는 데 대해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한국의 대북 압박 조치를 묵인하였다. 그 결과 중국 내 많은 여행사가 북한관광상품 판매를 중단하게 되어 북한을 여행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어들었다.¹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된 중국인의 북한 단체 관광이 아직까지 재개되지 못하는 것도

9) 『Daily NK』, 「중국인 북한관광도 중단..북한고립 심화」, 2006. 10. 20.

10) 신민재, 「북한 핵실험 위험 속 북·중 관광 협력 활발」, 『연합뉴스』, 2014. 5. 4.

11) 김지연, 「북-중 관광협력 실태분석과 전망」, 『KIEP 지역경제 포커스』, 제7권 제41호, 2013. 7. 1.

12) 김한규, 「중국인의 북한관광 변화 연구: 1980년대부터 2017년까지의 전개과정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제14권 제1호, 2018, p.74.

13) 박종국, 「핵 실험에 화난 中, 北 변경관광 외면」, 『연합뉴스』, 2009. 6. 4.

14) 김한규, 「중국인의 북한관광 변화 연구: 1980년대부터 2017년까지의 전개과정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제14권 제1호, 2018, p.73.

북중 관계 악화와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중국과 북한이 수교 75주년을 맞아 2024년을 ‘조중 친선의 해’로 선포했음에도 지난해에 중국인의 북한 단체 관광이 재개되지 못했던 것을 볼 때, 근년에 소원해진 북중 관계가 중국인 대상 북한관광 재개 지연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다만 2023년 8월 북중 간 교통로가 다시 열린 뒤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북한을 다시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을 북중 관계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근년의 북중관계가 2018~19년과 같이 좋지는 않지만, 북한이 핵 실험을 벌이고 중국이 북한관광을 불허하던 시절만큼 나쁜 상태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주북한 중국대사관 측과 관광을 담당하는 북한 당국자들이 중국인의 북한관광 재개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사실도 북중 관계 악화가 관광 중단에 주된 이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왕야전 북한주재 중국대사는 2023년 9월 22일 정성일 북한 국가관광총국장을 만나 북중 수교 75주년이 되는 2024년에 양국이 관광교류협력을 심화하기 바란다고 하였고, 정성일 총국장도 이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¹⁵⁾ 왕야전 대사는 2024년 4월 개성 왕건릉 방문 시에도 중조 친선의 해를 맞아 더 많은 중국 관광객의 개성 방문을 희망한다고 하였다.¹⁶⁾ 그는 2025년 2월 3일에도 평양 지하철이 중국 관광객들이 방북 시 들르는 중요 포인트라며 미래에 더 많은 중국 여행객이 평양 지하철을 둘러보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¹⁷⁾ 주북한 중국대사관은 2025년 5월 26일 정방산 주변을 정비하고 있으며 더 많은 중국 유커가 관광하기를 기대한다는 박해운 황해북도 관광국장의 발언을 홈페이지에 소개하기도 하였다.¹⁸⁾

소원한 북중 관계만이 아니라, 준비 부족 등을 우려하는 북한이 중국인 관광객 수용을 미루고 있는 것이 중국인들의 북한 단체 관광이 아직껏 재개되지 못하는 이유일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2025년 2월 나선특구에 서방 관광객들을 받아들인 바 있으나 후속 관광 프로그램 진행을 3월에 돌연 중단시켰다. 북한이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나선특구를 방문했던 여행 전문 인플루언서를 비롯한 서방 여행자들이 북한 당국이 관광객을 지나치게 통제한다거나 가난을 숨기려 하지 않는다는 등 결끄러운 내용을 SNS 등으로 전파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관광객 수용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 온 북한 당국이 중국인 관광객이 대거 몰려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비하고 이들을 수용할 준비를 철저히 갖추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15) 한종구, 「북중관광 재개 초읽기? ...중대사, 北관광국장에 “정상화 기대”」, 『연합뉴스』, 2023. 9. 22.

16) 김지수, 「주북 중국대사 “북중 관광협력 심화” ...중국인 북한 관광 재개?」, RFA, 2024. 4. 8.

1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명절날 사람들로 분비는 평양지하철도-조선주재 중국대사관 평양지하철도참관에 대한 보도」, 2025. 2. 5(http://kp.china-embassy.gov.cn/kor/zxxx/202502/t20250212_11553600.htm 접속일: 2025. 6. 15).

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정방산에 피어난 목련꽃」, 2025. 5. 26(http://kp.china-embassy.gov.cn/kor/zxxx/202505/t20250526_11633310.htm 접속일: 2025. 6. 15).

III. 러시아인 북한관광 확대 노력과 한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북한 국경이 봉쇄되기 전에 북한을 관광한 러시아인은 연간 수백 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북한 국가관광총국 김영일 국장은 2014년에 북한을 방문한 10만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중 러시아인의 수는 200여 명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¹⁹⁾ 러시아인들의 북한 단체 관광이 꾸준히 진행되는 것은 2024년부터 나타난 새로운 현상이다. 러시아인 대상 북한관광 확대는 근년에 크게 강화된 북러 관계의 결과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으나 이를 주도해 온 것은 러시아 연방정부가 아니라 연해주정부이다. 연해주정부는 북러가 밀착하는 흐름을 최대한 이용하여 연해주를 북한관광의 거점으로 만듦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고 노력해 왔다. 북한 당국도 연해주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호응하여 러시아인 대상 북한관광을 확대하려고 애쓰고 있다.

연해주정부는 북한의 국경 봉쇄가 풀리기 전부터 북한 당국과 관광 재개 및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아르세니 크렙스키 연해주 관광청장에 따르면, 연해주정부가 2022년 12월부터 북한과 관광협정 체결을 논의하였으며, 관광지 관련 정보 교환, 관광 인프라 및 행사 개발도 추진하였다고 한다.²⁰⁾ 올레크 코제마코 연해주 주지사는 2023년 9월 12일 푸틴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러시아를 방문 중이던 김정은 위원장을 하산에서 만나 관광분야 등에서의 협력을 연내에 시작하는 데 대해 논의하였다.²¹⁾ 같은 해 12월 14일에는 코제마코 주지사가 이끄는 연해주 대표단이 평양과 마식령스키장을 둘러보았다. 이런 과정을 거쳐 2024년 2월 9일 알렉세이 스타리치코프 연해주 국제협력국장이 이끄는 관광단 97명이 항공편으로 순안공항에 도착한 뒤 3박 4일 동안 평양과 마식령스키장을 관광하였다. 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1월 국경이 봉쇄된 이후 북한이 맞이한 최초의 외국인 관광객들이었다.²²⁾ 이후 항공편을 이용한 러시아인들의 북한 단체 관광이 꾸준히 지속되었다.

2024년 6월 6일에는 4년 만에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여객 열차가 운행되었다. 시험 운행 성격으로 러시아 하산역과 북한 두만강역 사이를 운행했으며, 연해주 관광청 직원들과 지역 관광업계 대표들 41명이 열차에 탑승하였다.²³⁾ 정식 열차관광은 7월 19일에 재개되었다. 러시아 하산역을 출발한 관광객 54명이 나선에 도착한 뒤 3박 4일 동안 머물며 사향산, 비파섬, 두만강 유역 등을 둘러보았다.²⁴⁾

19) 안윤석, 「北,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10만명 방문”」, 『노컷뉴스』, 2015. 2. 3.

20) 조진우, 「러, 북한에 전지비자 발급 재개 이어 관광협정도 추진」, 『RFA』, 2023. 7. 25.

21) 안소영, 「러시아 연해주 주지사 “북한과 건설·관광·농업사업 계획”...“노동자 파견” 전망」, 『VOA』, 2023. 9. 14.

22) 장이주, 「코로나 이후 첫 러시아 관광객, 평양 도착...“마식령스키장 등 방문”(종합)」, 『SPN』, 2024. 2. 10.

23) 양은하, 「북-러 여객열차 정기 운행 재개 전망...“시험운행으로 철도 점검”」, 『뉴스1』, 2024. 6. 11.

이처럼 북한은 2024년 한 해 동안 다른 나라 국적자들의 북한관광은 전혀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러시아인 관광객들에게는 문을 활짝 열었다. 그런데도 2024년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관광객의 수는 북러 양측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2024년 6월 코제마코 연해주 주지사는 2024년에 러시아 주민 수천 명이 연해주를 통해 북한을 방문할 수 있을 것이며, 철도 연결이 재개되면 관광객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연해주정부가 2025년 초에 밝힌 바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관광객은 1,500명 정도에 불과하였다.²⁵⁾ 러시아 연방통계청은 2024년에 북한을 관광한 러시아인의 수가 이보다도 적은 것으로 집계하였다. 2024년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인은 총 2,008명이며, 이 중에서 관광 목적으로 방문한 러시아인은 881명이라는 것이다.²⁶⁾

2025년에도 러시아 관광객 확대를 위한 북한과 러시아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3월 말 북한 국영항공사인 고려항공은 수요일에 평양과 블라디보스토크를 운항하는 항공편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평양-블라디보스토크 노선을 정기 운항하는 항공편이 주 2회에서 3회로 늘어났다.²⁷⁾ 5월 8일에는 북한과 러시아가 기존의 하산역-두만강역 노선에 더하여 블라디보스토크와 나선을 오가는 새 여객 열차 노선을 개설하였다.²⁸⁾ 2024년 9월 연해주정부는 2025년에 야말로 1만명에 달하는 러시아인이 연해주를 거쳐 북한을 여행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²⁹⁾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런 기대를 충족할 정도로 러시아인들의 북한관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

IV. 향후 중러 관광객 유치 전망

2015년경에 북한은 2017년까지 100만명, 2020년까지 200만명의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었다고 한다.³⁰⁾ 연간 8만명 수준이었던 외래 관광객 수를 2년 안에 10배 이상 증가시키겠다는 무리한 목표는 결국 달성되지 못했다. 그러나 2019년에 30만명가량의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여 어느 정도의 성과는 보여준 바 있다. 북한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던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완공하는 등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외래관광

24) 장이주, 「북-러 여객 열차 관광 4년 만에 재개...러 관광객 54명 방북」, 『SPN』, 2024. 7. 20.

25) 조진우, 「러 관광객 방북 지난해 1,500명 불과」, 『RFA』, 2025. 1. 13.

26) 이상민, 「작년 방북 러 관광객 881명...기대 못 미쳐」, 『RFA』, 2025. 2. 7.

27) 김인경, 「비행편 늘리는 北...외화벌이 수단 '관광'에 힘주는 김정운」, 『이데일리』, 2025. 3. 31.

28) 최인영, 「러 블라다-北 나선 여객열차 전송철 전일 운행 시작」, 『연합뉴스』, 2025. 4. 17.

29) 최인영, 「러 연해주 '내년 北 관광 규모 1만명으로 증가 기대」, 『연합뉴스』, 2024. 9. 9.

30) 안윤석, 「北, "2017년까지 관광객 100만명 유치 목표」, 『노컷뉴스』, 2015. 7. 13.

객 유치 확대를 위한 노력을 다시금 기울이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시작은 러시아 관광객 유치였다. 북한은 앞으로도 한동안 러시아인 대상의 관광을 확대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여행사 보스토크 인투르가 오는 7월 7일부터 14일까지 관광객을 파견할 계획을 밝힌 것으로 보아 원산갈마해안 관광지구를 처음으로 찾는 외국인도 러시아인들일 것으로 예상된다.³¹⁾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관광산업을 성장시키려는 북한의 노력이 큰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 중 하나로 먼 거리와 비싼 이동 비용을 꼽을 수 있다. 다시 말해 대다수 러시아인에게 북한은 너무 멀어서 장시간을 이동해야 하고, 항공료, 열차 운임 등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 관광지이다. 물론 러시아 극동지역은 북한과 가깝지만, 인구가 적고 소득수준이 낮아서 북한관광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다. 연해주정부의 집계에 따르면, 2024년에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관광객 중 연해주지역 주민은 30%가량에 불과하였다.³²⁾ 북한이 러시아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려면 인구가 많고 소득수준도 높은 우랄산맥 서쪽 지역의 주민들을 끌어들이야 한다. 그러나 서부지역 주민들로서는 모스크바에서 비행기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평양행 비행기로 갈아타거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나선행 기차로 갈아타는 여정이 길고 불편하게 느껴질 것이다. 러시아 내에서의 이동을 위해 북한관광과 맞먹는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점도 북한으로의 여행을 꺼리게 만들 것이다.

물론 큰 비용을 들여 먼 거리를 이동해도 좋다고 생각될 만큼 매력적인 관광 자원이 있다면 많은 서부지역 주민들이 북한관광에 나설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러시아인들을 매료시킬 만한 관광지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선전 문구와 역대 지도자의 기념물이 넘치는 평양이 소련 시절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는 도시이기는 하지만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듯한 북한의 수도를 둘러보기 위해 북한을 찾는 러시아인들이 많지는 않을 듯하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양질의 스키장들을 마다하고 마식령까지 가서 스키를 즐기려는 러시아인들도 많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심혈을 기울여 조성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가 바다 수영을 즐기는 러시아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관광지이기는 하다. 그러나 원산갈마에서 바다 수영을 즐길 수 있는 기간은 7~8월 두 달 정도이다. 이 기간에도 러시아 서부지역 주민들이 혹해 연안이나 전통적으로 선호해 온 해외 휴양지인 튀르키예와 이집트 대신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한 원산갈마를 선택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을 듯하다.

31) 조진우, 「김정은 공들인 원산 갈마 7월 러 관광객 방문할 듯」, 『RFA』, 2025. 1. 23.

32) 조진우, 「러 관광객 방북 지난해 1,500명 불과」, 『RFA』, 2025. 1. 13.

관광객에 대한 지나친 감시와 통제도 러시아 관광객의 수가 대폭 증가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된 이후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관광객들은 북한 주민들과의 접촉을 철저히 통제당한 것은 물론 사진을 촬영할 때도 찍을 수 있는 것과 찍을 수 없는 것에 대한 규칙을 따라야 했다. 북한 지도자의 사진이 구겨지지 않게 신문이나 잡지를 접는 방법도 배워야 했다고 한다.³³⁾ 향후 북한을 방문하는 러시아인 관광객들도 이런 식의 통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는 소련 붕괴 이후 자유롭게 국내외 여행을 해온 러시아인들의 북한관광 만족도를 크게 떨어뜨릴 것이다.

러시아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다면 북한은 결국 중국인 관광객을 다시 받아들임으로써 관광산업 성장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중국인 관광객 유치 노력은 러시아인 관광객 유치 노력에 비해서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2019년에 이미 24만~27만명의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실적을 올린 바 있기도 하다.³⁴⁾

다만 북한 당국이 기대하는 바와 같이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여 연간 100만~200만 명의 외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북한 관광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들로는 지나친 통제와 많은 금기로 인해 자유로운 관광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뿐 아니라, 교통 인프라를 비롯한 관광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 한반도 및 주변 지역 정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 등이 지적되어 왔다. 중국인 대상의 북한관광도 이런 요인들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김정은 정권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북한은 숙박, 쇼핑 등과 관련된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하다. 교통 인프라는 더욱 취약하다. 공항, 항만 등이 열악한 것은 물론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도로가 비포장 상태인 경우도 허다하다. 북한이 관광 인프라 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대북제재 등의 제약 속에서 단기간 내에 관광 인프라 부족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인프라 부족은 중국인을 비롯한 외래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하시킨다. 예컨대 중국인 관광객 수가 급증했던 2018년에는 단둥에서 평양으로 가는 국제 열차의 수용인원이 부족하여 여행객들이 단둥에서 신의주로 간 뒤 북한 국내 열차를 타고 평양으로 이동했다고 한다.³⁵⁾ 2019년에는 중국인 관광객이 쇄도하는 가운데 평양의 숙박시설이 부족하여 다른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이 숙소를 예약할 수 없게 되자 북한 당국이 중국인 관광객의 수를 제한했다고 한다.³⁶⁾ 북한의 관광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33) 임성빈, 「北여행 간 러 관광객의 솔직 후기...“할머니 살던 소련 같다”」, 『중앙일보』, 2024. 2. 27.

34) 최강호 외, 「북한의 대외관계 평가와 2020년 전망: 북중·북러관계를 중심으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20권 제7호, 2020. 2. 20, p.6.

35) 김한규, 「중국인 북한관광의 흐름과 변화」, 『KDI 북한경제리뷰』, 2019년 7월호, p.39.

36) 김영권, 「중·관영매체 “지난해 중국인 20만명 북한 관광”」, 『VOA』, 2019. 7. 24.

북중관계 등 한반도 및 주변 지역 정세의 영향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을 안정적으로 유치하기 어렵다는 점도 중국인 관광객 확대를 통한 북한 관광산업의 급성장을 어렵게 만든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인의 북한관광 수요는 북중 관계와 연동되는 경향이 강하다.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좋으면 북한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지만 양국 관계가 불편해지면 중국인의 북한관광이 위축되거나 중단되곤 하는 것이다.

V. 맺음말

북한이 러시아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고 향후 중국인 관광객 유치도 재개하겠지만 이런 노력을 통해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성장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의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이 성공하려면 교통 인프라를 비롯한 관광 인프라를 꾸준히 확충해야 한다. 대북제재로 인해 외국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없는 북한으로서는 쉽지 않은 과제이다. 외래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려면 관광객들이 자유로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지나친 통제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외부 정보의 유입을 극도로 우려하는 북한 당국으로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북한 주민들과 자유롭게 접촉하는 등 통제를 벗어난 행동을 하도록 허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북한이 기대하는 바와 같이 외래 관광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하려면 중러에 편중된 관광객 유치 노력을 확대하여 미국, 일본, 서방 등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2000년대 중반과 같이 남한 관광객을 대거 유치할 수 있다면 북한 관광산업에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다. 이처럼 북한이 한미일과 서방 등을 대상으로 외래 관광의 폭을 크게 넓히려면 핵전력 강화를 우선시하는 강경한 외교·안보정책을 대폭 수정함으로써 대외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이러한 정책 전환을 결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북한은 상당히 오랫동안 중러 관광객 유치에 치중하는 관광정책을 고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 성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 김영권, 「중 관영매체 “지난해 중국인 20만명 북한 관광”」, 『VOA』, 2019. 7. 24.
- 김인경, 「비행편 늘리는 北...외화벌이 수단 ‘관광’에 힘주는 김정은」, 『이데일리』, 2025. 3. 31.
- 김지수, 「주북 중국대사 “북중 관광협력 심화”...중국인 북한 관광 재개?」, 『RFA』, 2024. 4. 8.
- 김지연, 「북-중 관광협력 실태분석과 전망」, 『KIEP 지역경제 포커스』, 제7권 제41호, 2013. 7. 1.
- 김정우, 「북한 관광 독일인 연간 350~400명...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4%」, 『VOA』, 2016. 12. 30.
- 김한규, 「중국인의 북한관광 변화 연구: 1980년대부터 2017년까지의 전개과정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제14권 제1호, 2018, pp.41~84.
- _____, 「중국인 북한관광의 흐름과 변화」, 『KDI 북한경제리뷰』, 2019년 7월호, pp.29~47.
- 박종국, 「핵 실험에 화난 中, 北 변경관광 외면」, 『연합뉴스』, 2009. 6. 4.
- 신민재, 「북한 핵실험 위협 속 북·중 관광 협력 활발」, 『연합뉴스』, 2014. 5. 4.
- 안소영, 「러시아 연해주 주지사 “북한과 건설·관광·농업사업 계획”...‘노동자 파견’ 전망」, 『VOA』, 2023. 9. 14.
- 안윤석, 「北,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10만명 방문”」, 『노컷뉴스』, 2015. 2. 3.
- _____, 「北, “2017년까지 관광객 100만명 유치 목표”」, 『노컷뉴스』, 2015. 7. 13.
- 양은하, 「북-러 여객열차 정기 운행 재개 전망...“시험운행으로 철도 점검”」, 『뉴스1』, 2024. 6. 11.
- 이상민, 「작년 방북 러 관광객 881명...기대 못 미쳐」, 『RFA』, 2025. 2. 7.
- 임성빈, 「北여행 간 러 관광객의 솔직 후기...“할머니 살던 소련 같다”」, 『중앙일보』, 2024. 2. 27.
- 임을출·장동석·고계성, 『북한관광의 이해』, 서울: 대왕사, 2017.
- 장이주, 「북-러 여객 열차 관광 4년 만에 재개...러 관광객 54명 방북」, 『SPN』, 2024. 7. 20.
- _____, 「코로나 이후 첫 러시아 관광객, 평양 도착...“마식령스키장 등 방문”(종합)」, 『SPN』, 2024. 2. 1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명절날 사람들로 분비는 평양지하철도-조선주재 중국대사관 평양지하철도참관에 대한 보도」, 2025. 2. 5(http://kp.china-embassy.gov.cn/kor/zxxx/202502/t20250212_11553600.htm, 접속일: 2025. 6. 15).
- _____, 「정방산에 피어난 목란꽃」, 2025. 5. 26(http://kp.china-embassy.gov.cn/kor/zxxx/202505/t20250526_11633310.htm, 접속일: 2025. 6. 15).
- 조진우, 「러, 북한에 전자비자 발급 재개 이어 관광협정도 추진」, 『RFA』, 2023. 7. 25.
- _____, 「러 관광객 방북 지난해 1,500명 불과」, 『RFA』, 2025. 1. 13.
- _____, 「김정은 공들인 원산 갈마 7월 러 관광객 방문할 듯」, 『RFA』, 2025. 1. 23.
- 최인영, 「러 연해주 “내년 北 관광 규모 1만명으로 증가 기대”」, 『연합뉴스』, 2024. 9. 9.
- _____, 「러 블라디-北 나선 여객열차 전승절 전날 운행 시작」, 『연합뉴스』, 2025. 4. 17.
- 최장호 · 이정균 · 민지영, 「북한의 대외관계 평가와 2020년 전망: 북중 · 북러관계를 중심으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20권 제7호, 2020. 2. 20.
- 한종구, 「북중관광 재개 초읽기?...中대사, 北관광국장에 “정상화 기대”」, 『연합뉴스』, 2023. 9. 22.
- 항저우무역관, 「‘국제 사회 진입’ 달라진 북한의 관광 산업 현황」, KOTRA, 2028. 8. 31(https://dream.kotra.or.kr/dream/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2&MENU_ID=3340&CONTENTS_NO=1&bbsGbn=247&bbsSn=247&pNttSn=169237, 접속일: 2025. 6. 10).
- 『Daily NK』, 「중국인 북한관광도 중단..북한고립 심화」, 2006. 10. 20.
- Yin, Dave., “North Korea could reopen Rason to foreign tours in ‘near future’: Travel agency,” *NK News*, June 16, 2025.